

인쇄인으로 민간외교

“내 인생에 가장 큰 보람이죠”



지난 11월12일 국립민속박물관에서는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우호를 돈독히 하는 특별한 전시회가 열렸다. 블라디보스토크에 거주하던 한인들의 강제이주 66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열린 '사진으로 보는 한인 이민사와 카자흐스탄' 전시회에는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이한동, 이수성 전 국무총리, 박관용 국회의장 등이 참석해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특히 이날 행사 준비와 카자흐스탄 대통령을 영접하고 전시회를 안내한 사람은 한·카자흐친선협회 회장인 베델사 이옥련 사장이었다. 이옥련 회장을 만나 인쇄인으로서의 삶과 친선협회, 카자흐스탄의 동포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카자흐스탄과 고려인에 봉사하는 인쇄인

인쇄인 이옥련 회장이 한 카자흐친선협회 회장을 맡게 된 것은 인쇄인이 되기 전 국문학(한국학)을 전공한 그의 이력 때문이다. 이북이 고향인 남편과 함께 교직에 종사하고 있던 이 회장은 학술교류 관계로 모스크바 국립대학을 방문해 중앙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한국학 연구학자들을 만나게 된다. 그리고 그 명단을 토대로 93년에 중앙아시아 지역을 돌아보던 중 카자흐스탄을 방문하게 된다. 다수 민족으로 구성된 카자흐스탄에는 대략 8%에 해당하는 고려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하나같이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교육열이 높아서 학계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을 뿐더러 카자흐스탄 중앙정부에 진출한 인재들이 많았다.



◆ 전시회장에서 만난 이옥련 회장



◆ 전시장을 찾은 니자르비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화동으로부터 환영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주 1세에 이어 2세까지는 한국에 대해 잘 알고, 한국어를 어느 정도 구사하는 데 반해 고려인 3세대는 1, 2세대의 희생으로 교육을 많이 받아서 중앙 정부에 진출해 있는 와중에도 한국어를 구사하는 이들이 별로 눈에 띄지 않았다. 이에 한국어 전수와 조국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발전상을 홍보하기 위해 발 벗고 뛰어난 사업이 한·카자흐친선협회 사업이었다.

한·카자흐친선협회는 1994년 이 회장과 카자흐스탄에 진출해 있거나 진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중심이 되어 발족된 후 외교통상부로부터 사단법인 인가를 받았다. 조상기 상원사 사장 등 인쇄인들도 여러 명 참여하고 있다. 초창기 250여명으로 시작한 한 카자흐친선협회는 그동안 정부로서는 하기 힘든 민간외교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오고 있다.

우선 한국어 교실을 세워 한국어를 모르는 고려인 3세대이나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카자흐스탄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일을 수행하고 있다.

협회가 출범한 이듬해인 95년에는 해방 50주년 행사를 카자흐스탄 현지에서 이주민들과 함께 성황리에 진행했는데, 기념행사는 한민족의 잔치로만 끝내지 않고, 대한적십자사와 공동으로 대통령부인이 운영하는 보베크재단에 비상약 1200상자를 전해 주기도 했다. 여기에서 인연을 맺은 보베크 재단에는 이후에도 장난감이나 의류를 보내 주는 등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한복 입기를 좋아하는 고려인들을 위해 한복 500여벌을 제공해 고국을 그리워하는 이주민들에게 크나큰 힘을 주기도 했다.

협회가 행하고 있는 사업은 단지 카자흐스탄을 돕는 차원에서 그치지 않고, 카자흐스탄 이주민의 역사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일 때까지 미치고 있다. 지난해 8월15일에는 광복 57주년과 고려인 강제이주 65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한국문화 놀이마당을 개최했는데 이주 1세대인 최 베라 테트로브나 할머니의 필체로 '이곳은 원동에서 강제 이주된 고려인들이 1937년 10월9일부터 1938년 4월10일까지 토굴을 짓고 살았던 초기 정착지이다'라는 비석을 세워 강제 이주 65년의 뼈아픈 역사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번에 열린 사진전도 강제 이주 고려인의 아픔을 기록하고, 기억하기 위해 마련한 전시회로 총 100여 점이 전시됐다. 이번 전시 작품들은 향후 독립기념관이나 부산 등지에서 국내 전시회를 가진 뒤 2007년 강제 이주 70주년 기념 사업의 일환으로 우수토페에 지어질 기념관에 상설 전시될 계획이다.

교육자에서 인쇄인이 되기까지

교직에 종사하던 이 회장이 인쇄인이 되기에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다. 그리고 오늘이 있을 수 있었던 데는 그녀의 피나는 노력과 자존심이 뒷받침됐다. 이 회장이 인쇄와 인연을 맺은 것은 1980년 그녀의 친정조카 때문이었다. 당시 총무로 일대에서 잘나가던 인쇄업체를 운영하던 친정조카의 사업 확장을 위해 당시 돈으로 3천만원이라는 거금을 투자했다. 하지만 투자한 돈 3천만원은 운명의 장난처럼 조카의 부도로 인해 사라져 버렸다.

"당시 3천만원이 적은 돈도 아니고 또 남편에게 체면이 말이 아니어서 내가 저 사업체를 떠 안아서라도 복구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인쇄업에 뛰어들어 그녀는 3천만원이라는 거금을 또 한번 투자하게 됐다. 그러나 온실의 화초처럼 자란 그녀에게 인쇄업은 그리 호락호락 한 것이 아니어서 다시 한번 좌절을 안겨줬다.



1



2



3



4

1. 전시장 개막 테이프 커팅장면
2. 전시관 앞 기념촬영
3.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을 안내하고 있는 이옥련 회장
4.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이 박관용 국회의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두 번째 투자 때까지만 해도 간접적으로 인쇄업에 종사하던 그녀는 두 번의 투자가 실패로 끝나자 평생 직장으로만 여겼던 교직을 그만두고 직접 인쇄사 경영에 뛰어 들었다.

1년여 동안의 간접 경험이 있었지만 초창기 인쇄업에 대한 무지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다. 결국 그녀는 낮에는 직원들에게 인쇄와 영업에 관련된 지식을 하나 하나 배우고 밤에는 전직을 살려 학원강사로 나서는 등 부단한 노력으로 그녀가 투자한 돈을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녀가 투자한 돈을 다 회수했을 때 그녀는 교직이 아닌 인쇄인으로 영원히 남기로 결정했다.

그녀는 최근 사진전 준비에 매달린 덕분에(?)에 중요한 거래처 두 곳을 잃었다. 손쓸 틈도 없이 모 업체에서 상상도 못할 가격에 덤핑을 해버렸기 때문이란. 그러나 중요한 거래처를 잃었지만 항상 낙천적으로 고객을 다하자는 회사운영 방침 때문인지 웃음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한다.

카자흐스탄 인쇄업 진출 교두보 되고파

인쇄인인 그녀가 한 카자흐친선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관계로 카자흐스탄공화국에서는 그녀에게 대한민국의 인쇄업이 카자흐스탄에 진출하기를 권고하고 있다. 국가에서 땅과 공장을 준비해주고, 한국의 인쇄업자들은 기계와 몇몇 필수 기능공만 오라는 구체적인 제안이 몇 해 전에 들어온 상태이다. 그녀는 이런 카자흐스탄 정부의 제의를 단체와 몇몇 인쇄인들에게 전달한 바 있다. 몇몇 인쇄인들에게는 이들의 제의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함께 방문을 한 적도 있다고 한다.

이 회장은 “카자흐스탄이 빠른 속도로 자본주의 체제를 받아들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사회주의적인 요소로 인해 우리와 많은 문화적 차이를 가지고 있다. 이런 문화적 차이만 이해한다면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나라가 카자흐스탄이다. 필요하다면 내가 투자 매개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카자흐스탄 강제이주 역사

2003년 올해는 한인의 하와이 이주 100주년이 되는 해이다. 국력이 쇠약해져서 국민을 보호해 주기에는 너무나 힘이 없던 나라의 국민으로 태어난 죄로 사탕수수밭 노동자로 일품을 팔러 나간 지 꼭 100주년이 되는 해인 것이다. 언어도 통하지 않는 나라. 그저 먹고 살 거리만 주어도 행복했던 하와이 이주민들. 하지만 생계를 위해 하와이 사탕수수밭 노동자로 떠나야만 했던 그들은 영문도 모른 채 일본의 스파이라는 누명을 쓰고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강제 이주된 카자흐스탄의 고려인들보다는 행복했을 것이다.

1930년경 만주나 연해주 일대에 살던 조선인은 대부분 독립운동가들이거나 그들의 가족이었다. 하지만 중일전쟁 등으로 인해 일본의 존재를 의식하게 된 스탈린은 일본이 싫어서, 혹은 일본에 대항하기 위해 조국을 떠난 그들을 어이없게도 일본의 스파이 일지도 모른다는 가능성 때문에 카즈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지역으로 강제 이주시킨다.

1차 이주일인 1937년 9월21일에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에 총 1만369가구를 이주 시켰고, 같은 해 10월25일 2차로 17만1781명, 3만6442가구를 또다시 이주시켰다. 이어 11월15일 한인을 실은 마지막 열차가 노보시비르스크에 도착했다.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한인들은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땅에서 손과 나무로 토굴을 파고 20도가 넘는 추위를 견뎌야 했다. 이 추위와 배고픔을 견디지 못해 죽은 한인이 또한 부지기수이었다고 한다.

조선인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고향을 잃은 설움과 추위, 배고픔의 고통을 이겨낸 고려인. 그들이야 말로 진정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부모형제자이 아닌가.

〈대담:유창준 국장 사진:이용우 기자〉



◆ 전시회에 진열된 각종 사진에서는 강제 이주된 고려인들의 애절한 삶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 있었다. 위에서 두번째 사진 중 가운데에 있는 인물은 흥범도 장군이다.